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 패널 검토 보고서

1 머리말

전문가 패널은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본 패널의 역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 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특정 태아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을 공평무사하게 감독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배상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에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 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본 패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본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에 정보를 요청하여 수령하였고, 배상방안과 관련하여 공표된 경과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 이행 지표들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제공한 의견들을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전달 받아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본 패널은 배상방안의 이행에 있어서 적절히 실행된 부분과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배상방안에 대한 검토

2.1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의 소통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 업체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 차 조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19일 그룹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67% 이상의 배상 대상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배상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상방안에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수렴의견개요 전문은 배상방안의 시행과 동시에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¹에 공개되었다.

또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방안에 적용되는 자세한 배상규정²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배상 절차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배상방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배상규정은 배상 절차 진행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¹http://www.oxyrbkorea.co.kr/hs/compensation_2_3.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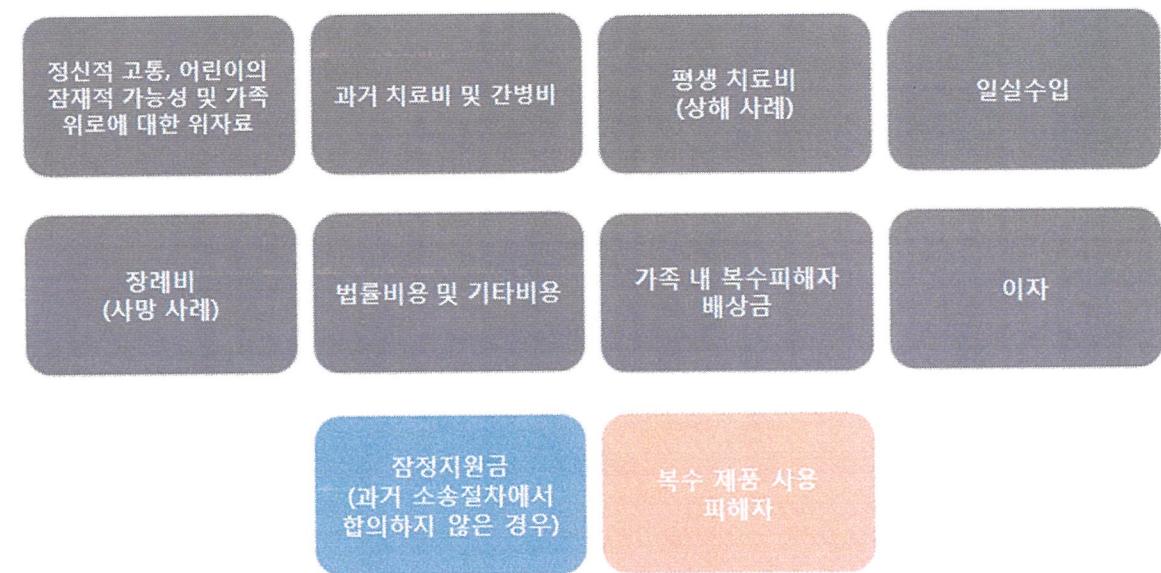
²http://www.oxyrbkorea.co.kr/hs/compensation_2_3.asp

제시하고 있어,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우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배상규정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은 전담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배상방안의 시행 이후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 및 그 근거 역시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배상합의가 체결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된 레킷벤키저 그룹 CEO의 사과 편지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발송되었다. 그 내용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초래한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에 대한 옥시레킷벤키저 그룹 CEO의 개인적 사과와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배상지원사무국은 배상합의를 완료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feedback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본 패널은 배상사무국이 4 차 배상합의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feedback 내용을 패널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배상규정에 관한 검토



배상제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자료이다. 이 위자료에는 피해자들이 겪은 수년간의 고통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장래의 잠재적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들이 제출한 의무기록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령할 위자료의 액수(및 배상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항목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가 결정된다. 그룹의 분류 및 그러한

분류가 배상금에 미치는 영향은 배상규정에 설명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그룹은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장애평가기준” 및 피해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최근 12 개월 이내에 실시된 피해자의 폐 기능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검사결과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였다.

그룹 분류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 배상방안 위자료의 기준 | |
|--------------------|---|
| 어린이 사망/ A 그룹 상해 | 금 10 억 원의 정액 배상금에 포함 (여기에는 과거에 지출한 배상적격 비용, 일실수입 및 이자가 포함되나, 법률비용은 별도로 배상됨) |
| 어른 사망 | 금 3 억 5 천만원 |
| 어른 A 그룹 상해 | 금 3 억 5 천만원 |
| 어린이/어른 B 그룹 상해 | 금 2 억 원 |
| 어린이/어른 C 그룹 상해 | 금 1 억 5 천만원 |
| 어린이/어른 D 그룹 상해 | 금 7,500 만원 (여기에는 위자료, 일실수입 및 과거에 지출한 배상적격 비용이 포함되나, 법률비용은 별도로 배상됨) |

A~C 그룹

1 차 및 2 차 조사에서의 배상방안에 대한 1 차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1 차 패널 보고서”) 및 3 차 조사에서의 배상방안에 대한 2 차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2 차 패널 보고서”)에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고려한 바 있는 (i) 각각의 피해자 별로 해당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기초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ii) 피해자들을 보다 세부적인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 또는 (iii) 모든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비하여, 피해자들을 세 그룹(A, B, C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당시 본 패널은 모든 방안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유일한 올바른 접근법이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접근법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패널은, 각 그룹에 대한 배상금의 수준이 장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유사 배상 사례들 및 과거 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배상금의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차 및 2 차 조사에서의 배상방안(“2016 년도 배상방안”) 및 3 차 조사에서의 배상방안(“2017 년도 배상방안”)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추가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배상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룹 분류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일관성있게 유지함으로써 상이한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이 상호 간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D 그룹

2018년 5월 25일 개정된 배상규정에는 D 그룹이 새로 도입되었다. 개정된 배상규정에 의하면, C 그룹 피해자들에 비해 상해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피해자들이 D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D 그룹의 도입 경위는 2차 패널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는바, 간략히 요약하면 옥시레킷벤키저는 상이한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이 상호 간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배상방안을 개정하여 D 그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정된 2017년도 배상방안에 따라 D 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는 위자료, 일실수입 및 과거에 지출한 배상적격 비용(단, 법률비용은 제외됨)을 포함하여 7,5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본 패널은 피해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 및 2차 패널 보고서에서 본 패널은 향후 이루어질 조사에서 인정될 피해자들이 기존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에 비하여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본 패널은 D 그룹의 도입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D 그룹에 대한 배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는 유사한 정도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배상 사례들 또는 과거 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배상금이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 신청이 보류되었던 많은 피해자들은 의무기록의 검토만으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배상금의 구성 항목들(옥시레킷벤키저에 의하면 D 그룹 피해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배상금의 구성 항목들이 의무기록상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패널은 D 그룹에 대한 배상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더하여, D 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도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배상규정상 건강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배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 내지 불확실성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상해로 인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측정하기 어려운 의료비 기타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위 제도들은 D 그룹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평생 지원

2016년도 배상방안 및 2017년도 배상방안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합의를 체결한 상해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비 및 간병비를 상환하여 주는 제도를 수립하였다. 본 제도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감독 하에 상환절차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AAI 헬스케어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다. 이 방안은 4차 조사에서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상해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있다.

1차 및 2차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는 상해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상환에 있어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 그러므로 향후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바, 1차 및 2차 패널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가 보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 정부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후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옥시 제품 피해자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배상방안의 시행 전 4차 조사의 피해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1)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및 (2)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이를 상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위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본 패널은 적절한 금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두 가지 배상방안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본 패널은 일부 피해자들이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시금 지급 방식은 수회에 걸쳐 적은 금액의 상환을 신청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피해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경우 그 금액은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본 패널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고,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수시로 상환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문제에 대한 본 패널의 결론은 의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한다. 정부, 보험회사 및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많은 수의 표본을 고려하는 경우 평균적인 의료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각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의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일시금 지급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시금을 모두 소진하여 향후 의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패널은 또한 일시금 지급에 의한 향후 치료비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폐손상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는 향후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패널은 일시금 지급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일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향후 치료비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패널은 궁극적으로는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AAI 가 아닌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관리를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이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민간업체가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추적 조사와 같은 조치와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옥시제품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상규정의 공정한 적용

옥시레킷벤키저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공정성 문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본 패널 역시 그간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이례적이거나 처리가 쉽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배상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바 있고, 그 결과 본 패널은 1 차 패널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제공한 문답서 및 각종 증빙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배상지원 사무국이 배상규정을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상금을 산정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상규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규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배상방안의 경우, 본 패널이 개별 사례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이는 2016년도 배상방안 및 2017년도 배상방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다수의 실무례와 해석기준이 배상방안에 계속해서 적절히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배상지원 사무국 역시 2016년도 배상방안을 처리한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조사 회차 사이의 공정성

옥시레킷벤키저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상이한 조사 회차 및 상이한 배상방안 사이에 공정성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2017년도 배상방안으로부터 얻은 교훈, 배상방안에 관하여 4차 조사 피해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및 1차 패널 보고서 및 2차 패널 보고서에서 제시하였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패널은 피해자들이 기존 1차 조사부터 3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에 등록한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원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상이한 회차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 사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4차 조사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7년도 배상방안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 중 일부는 사망피해자들에 대하여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패널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1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 피해자들 사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4차 조사 피해자들에게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2차 패널보고서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방안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할 경우 정년이 연장되고 가동연한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통하여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는 위와 같은 변경된 가동연한을 적용할 경우 4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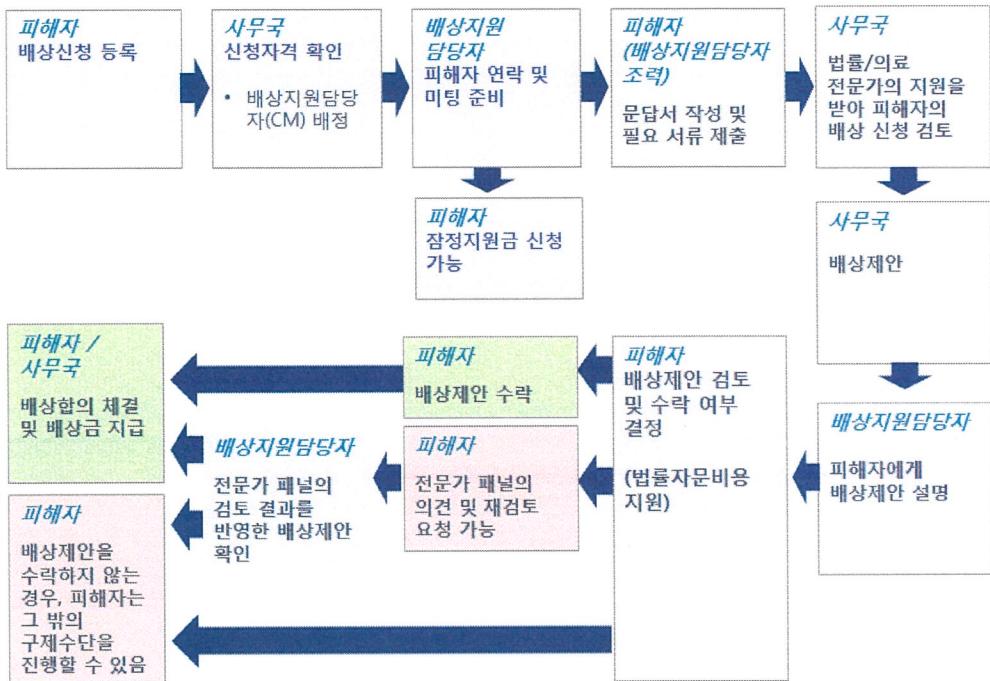
피해자들을 기준 피해자들보다 유리하게 처우함으로 인하여 배상방안의 핵심원칙인 공정성 및 일관성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실 수익 산정시 정년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배상안 적용대상인 피해자 중에는 정부로부터 천식 피해를 추가로 인정 받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폐질환 외에 천식 피해까지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규정에 따른 배상금 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전달 받았다. 이에 본 패널은 배상사무국이 문의한 천식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배상규정에 의하면 폐기능검사에 의하여 산정된 전신장애율을 기초로 위자료 및 일실수입이 산정되는데, 천식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폐 기능이 천식으로 인하여 더 나빠졌다면 그러한 상태가 폐 기능 검사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위자료 및 일실수입 산정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배상합의 후 5년 내에 피해자의 전신장애율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배상금 재계산을 통해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상해 피해자에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옥시레킷벤키저는 추가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공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배상규정의 핵심원칙 및 옥시레킷벤키저의 복수 제품 사용 피해자 접근방식에 따라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2.3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절차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2명 중 151명이 배상방안에 등록하였다(1명은 아직 등록 전이나 등록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함). 4차 조사 피해자의 99.3%가 배상방안에 등록하였고, 2019. 6. 13. 기준으로 옥시레킷벤키저는 등록 피해자 151명 중 146명과 배상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배상제안의 수락

신청인이 배상 지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문답서 작성은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출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사례에 배상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상제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각 신청인이 그들이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배상 지원 담당자들은 많은 신청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배상제안에 대해 문의를 한 데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답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본 패널은 배상 제안이 배상규정(어떤 피해자가 D 그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바, 어떠한 피해자든지 본 패널에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본 패널이 해당 사안을 종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배상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배상 신청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아래와 같다.

주요 사실 및 수치 :

각 배상 신청 유형별로 옥시레킷벤키저가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배상신청을 처리하는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59 영업일

어린이 사망 케이스: 44 영업일

어린이 상해 케이스: 63 영업일

어른 사망 케이스: 77 영업일

어른 상해 케이스: 55 영업일

케이스의 절차 진행에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시간은 188
영업일이다.

그러나 본 패널은 개별적으로는 배상 신청이 이보다 지연될 수 있고, 그러한 지연이 피해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배상방안의 경우 2017년도 배상방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상처리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졌는바, 배상지원 사무국과 배상지원 담당자는 이번 배상방안의 적용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가 2017년도 배상방안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처리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을 신청인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본 패널은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가 이번 배상방안의 배상신청 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내외적 의사소통이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의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사항 및 맷음말

배상방안과 관련하여 본 패널은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 및 결론에 이르렀다.

-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방안에 따른 배상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례에서의 배상방안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배상공식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배상방안에 따라 합의된 배상신청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옥시레킷벤키저가 지속적인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배상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본 배상방안에서는 기존 배상방안의 교훈 및 권고사항,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성 유지 및 판정절차의 변동에 대한 대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 옥시레킷벤키저가 균형을 비교적 적절하게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옥시레킷벤키저가 향후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4 차 조사에서 취한 것과 동일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앞서 작성한 패널 검토보고서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업체가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추적 조사와 같은 조치와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앞에서 기술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병원과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능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안내 리플렛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권고한다.
- 2017년도 배상방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D 그룹의 도입 배경, 배상규정에 명시된 D 그룹 판정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로서는 배상신청 당시 적용되었던 배상규정이 중요한 측면에서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D 그룹으로 분류함에 있어 최대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D 그룹으로 분류되는 피해자의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배상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해자들을 D 그룹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한다.
- D 그룹에 대하여도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이상의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배상완료 후 옥시레킷벤키저 CEO 의 1 회성 사과편지 발송뿐만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측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 및 편지 등을 보내도록 권고한다.
- 피해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공감할 수 있는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호흡체험교육 및 옥시레킷벤키저 임직원들과 피해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기업이념을 표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이외에 폐이식 수술이 필요한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환아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폐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성보 변호사

서명: 

이용진 교수

서명: 

김동수 교수

서명: 